

2017 사순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재의 수요일인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표현으로 주요한 전례 시기인 사순 시기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 시기에 우리 각자는 우리의 신앙이 공허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깊이 묵상하여, 파스카의 큰 사건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지금이 교회와 우리 각자를 위한 쇠신의 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은총의 때, 회개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과 귀를 열어 놓고, 특히 마음을 열어 놓고 우리의 작은 칸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우리 자신을 열어 놓고, 우리를 작아지게 하는 늘 같은 일상에 도전하도록 초대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의 시기를 위하여 교회는 마태 6,1-6.16-18 에 나타나는 세 가지 기등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교 생활의 근본 기등들인 기도, 단식, 자선에 대해 말합니다. 단순하고 겸손하게, 요란하지 않게, 우리가 걸모양에 지배되지 않게 하면서, 허영이나 허례허식 없이, 하느님의 마음 안에서 친밀하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첫째 요소는 기도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순 시기는 단순하고 깊고 내밀하고 더 긴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순전히 규정을 지키기 위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께 우리와 다른 이들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전구 기도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우리의 세상 안에 있는 수많은 가난과 고통의 상황에 대하여 전구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순 여정의 둘째 요소는 단식입니다.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얼굴을 하지 마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단식이 참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형제에게 몸을 굽히고 그를 떠맡는 태도를

기르게 해 준다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실업, 전쟁, 온갖 종류의 불의로 고통을 받는 다른 사람의 위치에 서게 한다면...

그러한 단식은 우리의 마음을 본질적인 것으로 향하게 해 줍니다. 우리의 태도들을 분석하고, 우리가 가진 갈망들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안전과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작은 일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본질적인 것을 향하게 하며 곤궁한 이들과 나누게 합니다.

셋째 요소는 자선입니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하듯이 나팔을 불지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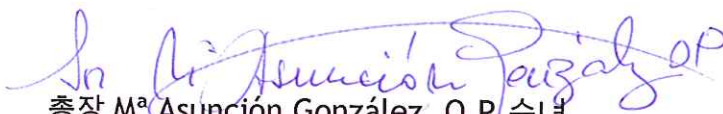
자선은 형제적 애덕의 형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 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더 곤궁한 이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자선은 우리가 선물에 대한 감사를 살도록 우리를 도와 주고, 소유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며 우리가 가진 것을 잃을까하는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애덕은 물질적 형태로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내일이 확실치 않거나 오늘도 굶주림을 겪고 있는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족 전체가 누추한 방에서 살면서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 없는 이들, 궁핍하게 된 노인들... 우리 각자, 왜 그들은 그렇게 나는 그렇지 않은가를 자문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에 오히려 사회와 정치 권력의 결점만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의 일부를 줌으로써 그들의 불행에 동참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만족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정, 그리고 형제적인 정의의 행위들으로써 그들의 불행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그리스도교적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투신하고 희생하라고, 그것도 단순하고 소박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이 40 일이 참으로 우리 자신과 만나는 때가 되게 해 주시기를, 다른 이들에 대한 큰 사랑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 파스카를 살도록 준비하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형제적 포옹과 기도를 보냅니다.


총장 M^a Asunción González, O.P. 수녀